

큰스님 수행한담

번뇌 시작됩니다”



66년 일본 동경에 흥법원을 세우면서 송산스님의 해외 전법이 시작됐다. 사진은 70년대 초반 일본 정토종 본부에서 합일불교지도자들이 기념 촬영한 모습.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송산스님.

사업가여서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무소를 설치하고 회사를 받았으면 참으로 국익에 보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행자로서 돈이 아닌 정신으로 국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66년 일본의 수도 동경에 흥법원을 세운 이후 대만과 미국 등 서구 유럽에 차례로 흥법원을 세워 그곳 현지인들에게 선수행을 가르칠 수 있었던 원인,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찾기도 전에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에 빠져 또 한번 정신을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화, 한국적인 것을 행하기도 못하고 세계화의 깃발을 달고 높이 날아가는 꿈만 키웠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슨 일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앞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IMF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짧은 견해일 뿐입니다. 아가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목표는 IMF를 빌어서 정말 한국적인 기업, 진실로 한국적인 경제구조를 창출해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굵고 깊은 뿌리가 있는 경제대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일이 급합니다. 외화를 벌어야 하고 소비를 줄

“불교가 무엇입니까” 묻듯 “경제·정치·문화 무엇입니까” 화두풀듯 노력하면 어려움 극복

볼날에 닳아 우는 소리가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볼날 닳우는 소리를 알면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했잖습니까. 닳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들었는지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도 뚫려 있는데 그 귀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었지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볼날 닳아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자기의 근원을 캐 물고 또 캐 물는가운데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볼날 닳우는 소리라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달음을 소리에도 불법의 적대대(的的大義)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익히 들어 본 것이지만 선문답을 더 들어 봅시다. 어떤 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삼서근이니라(麻三斤).” 또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마른 똥 막대기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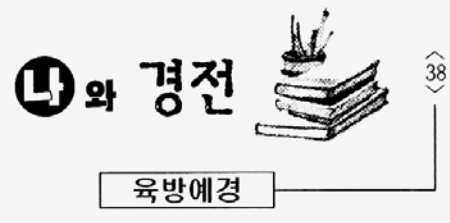
“근원캐보면 ‘春日鷄聲’ 에서도 불법만나” “세상일에는 목적·목표가 있어야합니다”

학이었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선수행법을 가지고 해외를 다니며 전법을 하는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이 서구 유럽에는 생소한 것이었고 그들의 황폐한 정신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에 그렇게 긴 세월간 세계를 무대로 전법의 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 길은 이어지고 있고 나를 인연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스님들과 똑같이 수행하는 눈부른 스님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도 서구유럽인들이 가진 정신적인 고급문화, 과학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의 통치와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서양열강의 군사정치 논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처 그 정신

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보다 더 멀고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터무니 없이 높게 목표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첫발을 내디디며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데도 먼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갈길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는 겁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如何是佛法)?” “볼날 닳우는 소리니라(春日鷄聲).”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가 무엇이나고 묻는데 볼날 닳우는 소리라니,

(乾屎橛).” 불교를 묻는데 이런 괴상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처를 똥막대기에 비유한다는 겁니까. 모를 일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그 말을 한 놈이나 듣는 놈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그 말한 것, 부처나 똥막대기 마삼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너와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 무엇이나. 그것은 곧 부처입니다. 마조스님의 유명한 공안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如何是佛)?” “마음이 곧 부처니라(心即是佛).”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如何是心)?” “부처가 곧 마음이다(佛是即心).” 마음과 부처는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정리=임연태 기자



본 각 중앙승가대 교수

학인시절 접했던 많은 경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이며 스승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깨우쳐준 것이 바로 육방예경이었다. 산문과 운문이 적절히 융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경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 윤리생활을 가르친 대표적인 불교문헌이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밖 죽림에 계실 때, 젊은 가장인 신가라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여섯 방위에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시고 이 젊은이를 향하여 육방에 예를 하는 의미를 규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설하신 것이 바로 육방예경이다. 이 경은 보다 정확히 불설시가지원 육방예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은 여러 분이 있는데, 먼저 팔리어 원전의 명칭은 <싱가로바다수탄타(singalovadasuttanta)>로서 <고수시가지원경(教授尸迦羅越經)>이 된다. 한역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건실함을 되찾게 될 것이다. 북쪽은 곧 벗에 대한 예배이다. 일생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선의의 경쟁자로서 우리는 좋은 벗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잊죽은 정신적인 종교지도자에 대한 예배이다. 현실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신을 향상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을 도우려는 고용인들에 대한 예배이다. 모든 일의 성취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부처님 당시 2천여년전의 고대사회에서 설해진 경전임에도 처자와 고용인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설하고 있는 점은 놀라우며 불교적인 생명·평등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임을 알 수 있다.

부모·처자 등 대하는 자기의무 담아 세상 살아가는 도리 자세히 가르쳐

본문에서는 <장아함경> 권 제11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경(善生經)>, <중아함경> 권 제33에 수록되어 있는 <선생경> 등 여러 이본이 있다. 이 경은 기원 3세기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며, 원시(아함경)에 속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육방을 통하여 예배하고 존중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동족에 대한 예배는 곧 부모님에 대한 예배로써 자신의 생명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예배와 공경을 동방으로써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서쪽에 대한 예배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예배이다. 더불어 사는 가족에 대한 지고한 사랑과 소중함을 예배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남쪽에 대한 예배는 자신을 향시켜 준 스승에 대한 예배이다. 스승은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스승도 있을 것이며, 지식을 일깨워 준 스승도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어두운 요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상실한 데서 오는 불행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쪽을 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스승에 예배할 수 있는 심성을 회복할 수

이 경전은 상대방에게 예배하는 의미의 내용으로써 철저하게 각자 자신의 의무를 설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예배한다 함은 아내를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고, 타인 앞에서 경멸하지 말 것이며, 난잡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가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몸을 아끼고 보살피며, 첫째로 동족에 대한 예배는 곧 부모님에 대한 예배로써 자신의 생명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예배와 공경을 동방으로써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서쪽에 대한 예배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예배이다. 더불어 사는 가족에 대한 지고한 사랑과 소중함을 예배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남쪽에 대한 예배는 자신을 향시켜 준 스승에 대한 예배이다. 스승은 삶의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스승도 있을 것이며, 지식을 일깨워 준 스승도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어두운 요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상실한 데서 오는 불행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쪽을 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스승에 예배할 수 있는 심성을 회복할 수

Advertisement for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We will work together in the field of the immortal). It features images of Buddhist statues and a list of services provided by the Buddhist Relief Association, including sutra recitation, chanting, and ritual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Daegu, and Gongju branches is provided.